예술을 사랑하는 아마추어들 "함께 놀아 볼까요"

연주회·전시 있는 '살롱 아르브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카페 '달정원'

'살롱 아르브뤼'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무대다. 아래는 플루메리아의 우쿨렐레 연주.

10월의 마지막 수요일 밤, 광주 예술의 거리 카페 달정원.

경쾌한 우쿨렐레로 연주하는 '백만송이 장미',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귀에 와 닿는 한국 가곡 '별을 캐는 밤', 플루트의 음색을 만끽할 수 있는 '아를르의 여인'까지. 늦가을의 정취를 더하는 아름다운 연주가 연이어 흘러나왔다.

이날 무대에 선 이들은 모두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이었다. 바쁜 삶의 일상 속에서 틈틈이 익혀온 솜씨를 자유롭게 선보이는 자리로, 떨리는 마 음으로 공연을 한 연주자도 관객도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지난 6월 시작한 '살롱 아르브뤼(Art Brut)'가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음악회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공연 제목으로 삼은 '아르브뤼(Art Brut)'는 프랑스 화가 뒤뷔페가 주창한 것으로 세련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형태를 지닌 미술을 말한다. '살롱 아르브뤼' 역시 날 것 그대로의 소박한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즐기는 살롱문화를 만들면 어떨까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이날 무대에서 잔잔한 피아노 반주에 맞춰 '별을 캐는 밤'과 '그리운 마음'을 부른 박종 조선대의과대학장은 "노래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오랜만에 여러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며 "자연스러운 분위가가 참 좋다"고 말했다.

우쿨렐레를 연주한 '플루메리아'(민순령·이은정·박애정)는 동화구연 등을 하며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다. 이날 연주 때는 실수가 있기도 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며 멋진 화음을 만들어갔다. "잘 노는 게, 잘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세 사람의 연주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행복 바이러스를 퍼트렸다. 즉석에서 이뤄진 박애정씨의 즉석 시낭송은 또 다른 감동을 전했다.

'달정원'엔 음악과 더불어 '그림'도 함께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용희경 사장은 올해부터 카페 공간에 분기별로 테마를 정해 그림을 내 걸기 시작했다. 고객들이 소장작을 내놓기도 하고,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걸기도 한다. '가을 이야기'를 테마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20여점이 전시중이다.

음악회는 예술을 좋아하는 주인장과 단골 손님들 덕에 자연스레 만들어졌다. 이전에도 즉석에서 손님들의 공연이 펼쳐지고는 했다. 노래를 부르고 지인들과 악기를 연주하고 멋진 시낭송도 이어졌다. 그러다 "그럼 우리 정기적으로 한번 놀아보자" 싶었다.

클래식과 세미 클래식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무대와 프로그램 대신 자유롭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했다. 연주가 서툴다고 뻘쭘해할 필요도 없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노는 기분'으로 해보자 싶었죠. 숨어있는 '쟁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처음에 몇몇 사람이 시작했는데 자연스레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라들이 무대에 서고 있네요."

이날 사회를 맡고 플루트 연주와 첼로 연주도 들려준 이상열 치과원장의 말이다.

연주회에 출연하고 싶은 사람은 카운터에 문의하면 된다. 분위기가 궁금하다면 관객으로 먼저 참여해 보는 것도 좋다. 24일 열리는 11월 공연에는 박방원 건축가가 노래를, 기세규 원장이 판소리를 들려주며, 즉석에서 참여도 할 수 있다.

"광주에 음악을 함께 하고 싶어하는 분이 이렇게 많고, 또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나도 노래를 잘 하는데, 나도 악기를 잘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끼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용희경)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오후 7시) 밤, 당신도 음악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구려 금관 화려한 등장

동곡미술관·박물관 12월 19일까지

고구려 금관이 화려한 자태를 드러냈다. 〈사진〉

불꽃무늬 고구려 금관은 보문문화재단 동곡미술관·박물관이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열고 있는 '한국의 금관 최초 발견 100주년 기념'전에서 오는 12월 19일까지 만날 수 있다. 신라·백제 금관과 달리 그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유물로, 공개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박물관 별도의 방에 전시된 고구려 불꽃무늬 금관은 360도 회전하는 좌대 위에 설치돼 사방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금관과 함께 출토된 유물 30여점도 만날 수 있다.

관테에 두 종류의 불꽃무늬인 세움장식 7개를 이어 붙인 형식으로 전형적인 삼국시대의 금관 양식을 띠고 있으며 둘레 59cm, 높이는 15.8cm 이다. 동곡박물관은 이사지왕릉(금관총)에서 신라금관이 출토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이번 전시를 준비했으며 지난 20일에는 관련 학술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박물관에서는 비파형동검등 130여점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 '고조선에서 조선까지 : 민족의 얼을 찾아서'가 열리고 있으며 미술관에서는 비운의 천재화가로 불리는 석현 박은용의 전시 '전원에 산다'가 진행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감사합니다…덕분입니다…임해철 성악가 '인생 3막' 무대

정년 기념 토크 콘서트…25일 금호아트홀
유튜브 채널 개설…발성 교정 봉사활동도

임해철(앞줄 가운데) 호남신학대 교수가 25일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동료, 후배 성악가들과 함께 '베이스 임해철 교수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임해철 교수 제공〉

호남신학대 교수이자 성악가인 임해철(65) 교수에게 2021년은 참 의미 있는 해다. 2022년 2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 강단에 서는 마지막 해이자 성악가로서 인생 3막을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임 교수가 그의 음악 인생에 함께 동행해 온 동료, 후배 성악가들과 함께 '베이스 임해철 교수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33년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정년하는 그의 세 번째 삶을 축하하고 그동안 임 교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이야기 & 우리들의 노래'를 주제로 펼쳐지며 1부 '덕분입니다'와 2부 '감사합니다'로 구성됐다.

임 교수는 연세대, 이태리 로마 국립 콘서바토리오를 졸업했으며 동아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젊었을 적 서울에서 주로 활동했고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등에서 주역배우로 무대에 섰다. 광주로 내려와서는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음악 인재 양성과 지도에 힘쓰는 한편 광주성악콩쿠르를 만들고, 광주오페라단 단장, 광주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하며 광주 클래식 문화 발전에도 앞장서왔다.

그러던 그에게 2010년 시련이 찾아왔다. 2009년부터 앓고 있던 확장성심근병증으로 인한 심장발작으로 119에 실려갔고 심장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2010년 6월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그는 수개월간 기약없이 심장기증자만을 기다려야했다. 2011년 8월 익명의 기증자로부터 심장을 기증받아 두번째 삶을 얻은 임 교수는 이번 음악회 1부를 심장 기증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무대로 꾸밀 예정이다.

임 교수는 "누군가 죽어야만 그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데, 기다리면서 죄책감이 들었다"며 "심장 수술 전에는 '마이웨이'의 삶을 살았다면 수술 이후에는 주변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아내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어요. 기적같이 세 번째 삶이 주어졌습니다. 주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공연을 준비했어요. 특별히 이번 음악회는 중세시대에 음악가들이 거실에 모여 자유롭게 음악을 교류하고 서로의 우정을 나누던 '살롱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부 시작 때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짧은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임 교수와 젊었을 적 부터 함께 공연을 해온 피아니스트 박지현, 소프라노 이지연·이승희·박수연·김진희, 메조소프라노 신은정, 피아니스트 나원진, 테너 고규남·조창후·김홍태·조효종, 바리톤 홍성진·윤영덕 등이 함께한다.

공연에서는 베토벤 '그대를 사랑해', 멘델스존 '노래의 날개위에', 헨델 '동틀녘 웃는 꽃', 손경민 '은혜'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 뮤지컬 '캐루셀', '맨 오브 라만차', 오페라 '베르테르', '카르멘', '돈카를로' 등에 삽입된 곡들도 만날 수 있다.

임 교수는 한국발성교정협회 광주지부장으로서 '발성교정' 학문 전파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금까지 교수로, 행정가로 활동했다면 이제는 성악가로서 살아가고 싶어요. 유튜브로 관객들과 만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에 스튜디오도 만들었어요. 또 지금까지 배운 것을 베풀며 살기 위해 발성교정 등을 가르치며 사회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문의 010-8602-032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찾아가는 인생 나눔교실' 멘토 봉사단·멘티 기관 모집

예술위 내년 1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이하 예술위)는 2022년도 '찾아가는 인생 나눔교실' 사업에 참여할 멘토 봉사단과 멘티 기관을 모집한다.

'멘토 봉사단'은 인문·문화예술 분야의 소양과 지식이 풍부한 중장년 세대로,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멘토 봉사단'은 사전 교육을 거친 후, 멘티 기관에서 약 10~15회 내외의 멘토링을 진행한다.

'멘티 기관'은 인생나눔 멘토링을 희망하는 아동, 청소년, 다문화, 노인 관련 시설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자유학기제 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참여 기관 외에 청소년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호남권에서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약 40명 내외 멘토를 내년 1월 31일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만 50세 이상으로 모집 공공일 이전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내 거주하는 분으로 제한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이터널스
2관	이터널스
3관	듄, 프렌치 디스패치, 강릉
4관	장르만 로맨스
5관	이터널스, 디어 에반 핸슨
6관	장르만 로맨스
9관	듄, 아담스 패밀리 2
7관 씨네커플	디어 에반 핸슨, 듄, 후겟츠 웨슬리, 송해 1927,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
8관 씨네커플	디어 에반 핸슨, 프렌치 디스패치, 귀멸의 칼날: 남매의 연, 고장난 론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극단 제17회 정기공연
나의 살던 고향
일시 : 2021.11.25.(목)~27.(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11-2759

GAC특별기획공연
김수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11.28.(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